



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·스노보드대회가 지난 1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. 동계스포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열띤 경기를 벌였다. 이에 본보는 대회 현장을 둘러보았다.



아이부터 어른까지 기량 맘껏...

## 은빛 설원에서 펼쳐진 동계스포츠 축제



\*\*사진=김민근 기자

◆ 초등학교부터 일반인들까지 동계스포츠에 자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회가 가진 장점중에 하나이다. 지난 17일 오전, 은빛 설원에서 수많은 참가자들이 열띤 경기를 벌였다.



### 기대감 가득한 시상식

대회를 마치고 나면 영광의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. 기대감으로 들끓는 이 순간,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상이 수여된다.

1. 실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상을 수여받은 초등학생 선수들.
2. 상장을 보여주고 있는 일반인 부문 수상자들이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.